

정동영 대변인  
겸임교수로 위촉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이  
지난 1일  
언론정보대  
학원 겸임  
교수로 위  
촉됐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정대변인은 이번 학기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특강을 한다.

### 공인회계사 8명합격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본교 졸업생 8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소연(회계 98졸) △김재환(경영 97졸) △박성오(회계 94졸) △배명규(산공 97졸) △성지훈(회계 98졸) △최상범(물리 98졸) △최승희(회계 94졸) △한규성(회계 98졸) 등 이상 8명이다.

### 명예(홍보)위원 위촉장 전달 오는 15일 총장실에서

본교 발전기금 마련 및 홍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명예위원과 명예홍보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총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는 위원으로는 명예위원 4명을 비롯 탤런트 김용림·전원주·여운계씨와 가수 김홍국씨 등 총 8명으로, 이로써 활동하는 위원은 모두 21명이 된다.

명예위원 및 명예홍보위원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학교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불교 종합병원 홍보와 재원마련 등에 기여를 하고 있다.

###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오는 22·23일...북경대와 첫 공식회의

제1회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정보화 시대의 한·중 전통문화(유·불·도 철학사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95년에 자매 협정을 맺은 중국 북경대와 처음으로 갖는 공식 학술회의로써 앞으로 양 대학간 학술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북경대의 오동서·정육철·저빈질·위상해·왕종욱 교수와 본교 김형배(철학)·권기중(불교학) 교수, 윤사순 고려대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다.

# 구조조정안 “부분 수정 필요하다”

## 지나친 기업경영 논리...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 기대

본교 교직원들은 지난 4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경주캠은 지난 8일) 구조조정 관련 설명회에서 제시된 구조조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며, 지나친 기업경영논리를 점목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지난 10·11일 이틀동안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직원 62명(서울캠 34명, 경주캠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전 21세기 동국’ 경영진단팀(팀장=송계진·LG경제연구원 수석 컨설턴트)의 구조조정 관련 설명회 및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경주캠은 17일) 공청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으며, 이로써 구조조정안의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33%)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지나친 기업경영논리를 점목시키고 있다’(32%)의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비영리업체인 대학이 팀제등을 전면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논리를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설명회에 대해 ‘학제나 재정부문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다’(20%) ‘상당부분 인정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10%) 등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안 중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시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서간·개인간 상호협조 저하’ 등을 이유로 많은 직원들이 ‘팀제·연봉제’ 등을 꼽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행정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의 전부인양 생각한다’와 ‘교직원의 인력감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등을 우려했다. 경주캠의 경우 자율적 의사결정구조로의 보완 필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경쟁 필요’ ‘위기를 인정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영진단팀의 제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공청회는(경주캠은 17일) 구조조정에 관해 학내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구조조정안의 실질적 조율이 이뤄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상담수의 직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솔직한 답변 등이 공청회에서 꼭 이뤄져야 할 것으로 답한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체간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경영진단팀이 제안한 일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공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의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설명회 때 빠진 학계개편부문과 재정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도 크리



는 예상이다. 개혁은 일부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조조정은 각 주체들간 이해가 얽힌 문제인만큼 공청회 자리에서 제시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교의 현구조와 정서에 적합한 대학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

김미경 기자

### 경주캠 학투위, 학부제 전면반대 투쟁

#### 현실 상황 인식한 발전적 방향 모색해야

경주캠의 학과 통합합(학과 모집 단위별 변경) 문제가 현재 불교이동학과와 시위농성을 기점으로 단대전체의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학부제 반대를 위해 발족한 단대들의 모임 ‘학부제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조해동·영문4 이하 이하 학투위)’는 지난 10일 학부제 전면 반대를 위한 모임을 갖고 원효관 중정에서 시위농성, 학생청과의 면담을 거친 후 내일(15일) 오후 1시 부총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현재 학투위원들은 단식투쟁 중이다.

총학 및 일부 자치기구들은 학부제 수정·보완을 위한 상경투쟁을 주장하면서도 학부제 전면철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교원 보직 인사 발령

학교당국은 교원보직 인사 발령을 확정·발표했다. 인사발령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원 교학부장=김신근(인도철학) 이상 9월 7일자  
〈경주캠퍼스〉  
△인문과학대학장=오영진(일어일문학) 이상 8월 13일자 △지역개발대학원장(사회문화교육원장 겸직)=김영종(행정학) △법정대학장=우성기(법학) △상경대학장=이시영(경제학) △이부대학장=윤진호(회계학) △교무

장=이계영(전자계산학) △학생처장=이준성(법학) △도서관장=이갑득(화학) △정보관리처장=임재걸(전자계산학) △여학생부처장=박명숙(가정교육) △학술연구부장=고창택(철학) △외국어교육원장=정내원(영문학) △컴퓨터교육원장서리=조영석(전자계산학) △동대신문사 부주

간=심규박(통계정보학) △교육방송국장서리=이연형(정보통신공학) △정각원교법사=정무환(선학) △금장생활관장=김복순(국사학) 이상 9월 1일자

교수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일 본교 중앙당에서 교수인사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김남진) 주최로 열렸다.

전국 대학 교직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김남진 위원장의 인사말과 조순제 교육부차관의 격려사에 이어 주제발표·지정 토론·종합토론의 순으로 4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김충배 고려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서는 이종각 강원대 교수, 이경만 한국교원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박동희 전 건국대 교수(교수신문 보장을 위한 협의회 회장), 백봉호 한국대학법인

# “본교출신 교수비율 35%로 제한”

## 교육부,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내년부터 시행



이종각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교수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일 본교 중앙당에서 교수인사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김남진) 주최로 열렸다.

전국 대학 교직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김남진 위원장의 인사말과 조순제 교육부차관의 격려사에 이어 주제발표·지정 토론·종합토론의 순으로 4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김충배 고려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서는 이종각 강원대 교수, 이경만 한국교원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박동희 전 건국대 교수(교수신문 보장을 위한 협의회 회장), 백봉호 한국대학법인

등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각 토론자들은 찬성 및 격려의 뜻을 비추기도 했지만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종각 강원대 교수는 “교수선발 임용과정에 있어서 부조리의 핵심은 해당대학에서 임의로 뽑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각 대학의 심사권 및 채용권을 100% 인정된 상태의 개선방안은 미온적 개선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백봉호 한국대학법인 협의회 이사는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의견을 펼쳤다.

지정토론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서 교수 기간제 임용의 개정에 대한 내용이 방청객 서면질의 내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대해 박동희 전 건국대 교수는 “재임용제도의 개선에 앞서 해직교수의 즉각적 복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은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취재부

**알림**  
수습기자 선발관례로 9월21일자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1255호 신문은 9월28일자로 발행합니다.

# 동대신문 수습기자 모집안내

-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 취재·사진기자
- ▲ 제출서류 : ① 지원서(본사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 원서접수 : 9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울캠·경주캠 9월 17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 “강설입은 신중함이 아니잖아”

실패의 두려움 보다  
자신의 나약함을 부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 얼굴을 찾기 위해  
그래  
도전해 보는 거야

수습기자 모집광고

동대신문사

‘동악의 목소리’

학내 복지향상 기대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학내 구성원들이 교내 복지매장을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내 매장 모니터제도인 ‘동악의 목소리’를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내의 식당, 매점, 서점, 자판기 등의 이용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비치된 용지에 적어 게시판에 게재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모니터 제도와는 달리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이 이뤄져, 이용뿐만 아니라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자이력서 제작

취업활성화에 일조

9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들의 이력서 CD 한 장에 담겨져 1천여개의 기업에 발송된다.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졸업예정자들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CD에 담아 채용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이력서를 제작한다.

오는 23일까지 단과대별로 수합해 다음달 20일 쯤에 각 기업에 발송할 예정인 전자이력서는 최근 기업의 수시채용 및 비밀채용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연, 실업자위한 행사

전동대회 16일 열려

동아리연합회(회장=박영민·건축4)는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학생회관 1층에서 실업자를 위한 대책 선전활동과 기금마련행사를 벌인다. 한편 98 하반기 전체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오는 16일 연화관에서 개최된다.

오는 23일 끼장터 개최

매주 수요일 실시예정

학내의 자유로운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여학생부처(처장=임둔희·사학)는 오는 23일 동계구름의 노래공연과 30일 현여울의 클래식 기타연주공연 등 이달에 두 번의 끼장터를 마련한다.

끼장터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계산관 앞마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공연소재에는 제한이 없고, 참가희망자는 여학생부처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학생회 간부·경영진단팀 간담회

“본교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이뤄져야”

교육·연구, 질적내실화 재정, 연구비수주·기금조성

총학생회가 지난 4일 진행된 본교 구조조정 관련 설명회를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에 비유하며 구조조정의 핵심은 학제개편의 방향과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제작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육개혁과 재원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러한 학내 주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G경영진단팀(팀장=송계전·LG경제연구원 수석 컨설턴트)은 지난 11일 동국관 L동 사무실에서 이희성 부총학생회장(국교4), 오대혁 대학원부총학생회장(국문학·박사과정 3학기), 박혁 대학원총학생회 사무국장(정치학·석사과정 2학기), 이석중 대학원총학생회 편집위원장(일학·박사과정 1학기) 등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5개 항목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과 함께 이제껏 공식적으로 자세히 언급된 바 없는 교육·연구, 재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연구에 관한 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 선택권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이래 제도 중심



송계전 팀장이 교육·연구, 재정부분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 개혁과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운영중심의 개혁을 통해 질적내실화를 이룬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계전 팀장은 본교 교수 연구·논문의 저조등 본교의 교육·연구 진단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학과에 열매이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탈피해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탄력형 모형을 추구해야 한다”며 전공트랙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입은 최대화 시키고 지출은 효율화 시켜야 한다는 기본 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교의 등록금 의존도가 78%에 달하며 재단전입금이 전국 20위권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외부 연구비수주, 발전기금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시간여동안의 설명이 진행된 뒤 구조조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

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재정부문, 제3캠퍼스, 대학원 행정개편부분, 성과급제, 특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송계전 팀장은 “다른 대학들이 한다고 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동국대는 동국대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후 박혁 대학원총학생회 사무국장은 “항후 학교 당국을 비롯한 각 주체들의 공개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송계전 팀장은 “변혁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선 이를 잘 해결해야 한다”며 “평가의 일상화·활성화가 개혁의 근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남대철 기자

재정·교육부문 진단

재정진단 필요성 부각·학사구조조정은 자연스럽게

지난 1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재정의 투명성’과 ‘학사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조조정 설명회 이후 일제된 재정부문과 교육·연구부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학내주체의 우려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토론이 시작되자 재정과 교육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대학원총학생회 박혁 사무국장이 “재정의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직원을 비롯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자, 송계전 경영진단 팀장은 “우리는 회계감사를 하러온 것이 아니다”라며 “수입이자

활동과 관리, 구대단체를 제시하는 등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정도만 제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의료원 운영·발전기금조성,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 등의 재정부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요즘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본교의 실행 가능성 및 여부는 한마디로 ‘미지수’다. 이석중 대학원신문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성과를 위해서 어떠한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영진단팀의 입장은 달랐다. 연구중심대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계전 팀장은 특성화를 강조하며 “실행이전에 필요한 것은 실

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연구중심대학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교는 지난 96년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서 불교와 한국문학분야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정보통신 및 경상분야를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특성과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번엔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영상정보통신분야 특성화의 미래는 밝아졌다. 이같은 학교측의 특성화의지와 경영진단팀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결국 우리학교는 대학원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김홍환 기자

8대 노조 출범식 지난 10일 열려

회전무대

넘어오지마

8대 노동조합 출범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조합원 1백여명과 송석구 총장, 정병조 부총장, 각 부처 실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7·8대 임원 이·취임식으로 2부는 정기총회 및 안건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임입사에서 김청옥 7대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도와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경선 8대 노조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구조조정 및 총장선거등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개혁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부 순서에서는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승인 대학 단일노조 조직전환 찬반 투표 등이 진행됐으며 조직전환 찬반투표에서 찬성 87.6%로 대학단일노조 조직전환으로 결정됐다. 대학단일노조는 각 대학별로 흩어져 있던 노동조합이 하나의 전국대학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포샵 창업특강

오는 16·17일 ... IP창업 무료 지원행사도

취업대란시대의 학생들을 위해 창업관련 특강이 2차례 실시된다. 우선 ‘대학생을 위한 IP 창업 및 취업로드쇼’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90주년 기념문화관 세미나실3에서 (주)나우콤 주최로 열린다.

이번 강연의 내용은 △IP창업의 ABC △IP창업과 성공사례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취업하기 등이며 여기에서 IP란 Information Provider 또는 Information Producer의 줄임말로 정보제공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최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벤처인의 꿈’이라는 주제로 21C 벤처사업 인포샵(IP) 창업지원 행사가 오는 17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주)한국 인터넷 통신과 동국벤처창업연구회 주최로 진행된다.

△인터넷과 PC통신사업의 현황 △유료정보제공 사업의 현황과 전망의 내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특히 학생들을 위한 IP창업 무료지원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단과대 소식

불교대(회장=최준호·불교4)는 경주불교문화대학과 연대해서 2학기 첫 사업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유적탐방을 떠난다.

법과대(회장=조성환·법4)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학술제를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매일 3시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심포지움을, 늦은 6시에는 중강당에서 모의재판을 할 예정이다.

공과대(회장=유홍식·산공4)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북 제천 연박리로 농활을 떠난다.

예술대(회장=임동익·연영3)는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정치수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 12일 다함관 하루주막에서 상영했다.



노래로 투쟁...

지난 12일 다함관학생식당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하루주막이 열렸다. 본행사에서 앞서 희망새가 공연을 하고있다. 남대철 기자

이동 병무 상담실

98학년도 편입생 및 복학생, 재학생들을 위한 병무 상담과 해군 학사장교 응모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동 병무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98. 9. 24. 목요일(1일간)
- 2. 시 간 : 10:00부터 15:00까지
- 3. 장 소 : 본관 취업자료실
- 4. 상담요원 : 병무청 공보실직원 및 해군본부모병관

학 생 처 장

조정래 선생 초청 강연회

- 1. 행사명 : 만해석교과수 조정래 선생 초청강연회
- 2. 제 목 : 민족문학의 나아갈 길
- 3. 일 시 : 98. 9. 16. 수요일(15:00~17:00)
- 4. 장 소 : A 104(명진관)

국어국문학부

98-2학기 수강과목 취소(W) 시행

9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강자에 대한 수강과목 취소(W)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1. 기 간 : 98. 9. 23(수) ~ 24(목) - 2일간
- 2. 장 소 : 소속대학 교학과
- 3. 유의사항 :

가. 98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 중 1,2,3학년 신교육과정 대상 교과목 수강자에 한해 수강과목 취소 가능함(단,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취소처리 전 장학금 수혜 가능 학점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 장학생 선발 기준은 신청학점이 아닌 취득학점 기준으로 함

다. 취소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됨.

교 무 처 장

98-2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

수강신청 및 정정한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강신청 최종확인서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필히 제출하기 바람.

- 1. 기 간 : 98. 9. 15(화) ~ 24(수) - 2일간
- 2. 장 소 : 다 대학 교학과 및 학과(부)

- 3. 유의사항 :
  - 가. 정정기간 후 복학하여 미수강신청한 학생, 추가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함.
  - 나. 수강신청 최종확인서를 통해 수강신청 및 정정사항을 확인토록 하며, 수강신청사항에 이상이 없는 학생의 경우도 반드시 확인(도장 또는 사인)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 다. 금번 학기 특별시험 합격자는 합격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삭제하여야 하며, 초과학점 신청시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라. 출석부에 수기로 이름만 등재하고 전산으로 수강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은 무효임.
  - 마. 금번 수강신청 최종확인기간 중 최종확인서를 확인 후 제출치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교 무 처 장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취업강연회

- 1. 행사개요
  - 행사명 :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98동국대학교 취업강연회」
  - 일 시 : 1998년 9월 22~25일
  - 장 소 : 중강당 및 학림관 소강당
  - 주 최 : 동국대학교 10대 졸업준비위원회
- 2. 행사내용
  - 22일
    - 취업 설명회 : -21C인재상과 취업전략- IMF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변화에 따른 취업전략 강사 : 삼성전자 인사부 김병구 부장
    - 외국계회사의 취업설명회 : 외국계 회사의 국내진출현황과 채용분석 강사 : 한국솔루션 한상훈 대표
  - 23일
    - IMF시대! 경제적인 영어연수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 베이스캠프 유학원 최 혁 원장
  - 24일
    -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 : SOHO란 무엇인가? SOHO 및 VENTURE 창업의 모든 것 강사 : 한국 사업개발원 이형석 원장
    - 컴퓨터하나라도 돈을 벌자!!! : on-line상의 제테크. 21C유망사업 IP 창업의 전략 강사 : 정보검색엔진 심마니 김봉재 사장
  - 25일
    - 해외취업 전략과 국내 인턴사원의 전망 : 해외 취업 및 해외파견인력(헤드헌트)의 실태분석, 국내 하반기 인턴사원채용의 허와실 강사 : 매일 경제신문사 취업뉴스 기획팀 신상훈
    - 나의 상품가치를 높이자!!! 하반기 채용전략분석, 입사서류작성법(입사지원서, 국문/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입사시 갖추어야 할 중요요건... 강사 : 매일경제신문사 취업뉴스 강제성 국장
- 기타
  - 모의 토익 : YBM시사영어사 Korea Daily 모의 TOEIC(1회실시)

졸업준비위원회

재벌개혁 필요성

논단

# 재벌 스스로의 개혁이 곧 시대적 요구

## 지배구조 · 재무구조 · 문어발식 경영 과감히 타파해야

현재 우리사회는 전반적인 개혁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개혁대상의 영수자인 재벌은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끈질긴 요구로 5대 재벌기업간의 빅딜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경제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재벌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을 무시할 순 없지만 이제 환경이 바뀌고 경쟁상대가 달라진 오늘날 대기업간의 빅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벌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들이 살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재벌 나름대로 그들의 고비용과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비용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임금비용 보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이 두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 경쟁 대상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일방적 정리해고는 어느 정도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실효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비용보다 저효율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다는 데 있다. 그들은 중복과잉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저효율을 가져왔고 아울러 그룹총수의 일인독재에 대한 경제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외면해 경영의 저효율을 야기시켰다.

사실 재벌의 투자와 경영의 저효율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치 못한 것이 고비용을 증가하고 있다. 예전의 경우 고성장으로 인한 여유로 이와 같은 저효율을 감수할 수 있었으나 IMF체제

아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벌의 확실한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강한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소유하지도 않으면서 경영하고 2세세습을 당연시하는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투명한 지급보증이 만연되고 있는 재무구조 역시 바꿔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어발식 경영으로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업종에 참여하는 1인 또는 가족지배하의 재벌기업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길이다.

재벌 안에 있는 개별기업을 일인의 그룹총수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시켜 전문대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따라서 독립된 기업은 내부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송 일 호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구조 조정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IMF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재벌의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다 최근 대량감염으로 인한 거대실업군단이 재벌에 대한 적대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은 고립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재벌기업의 자기개혁을 위한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벌은 자기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 IMF의 종식을 위한 시급한 시대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 대학구조조정 현황

## 교육부 주도하 반강제적 실시

### 학내 구성원 공유 · 합의만이 진정한 구조조정

대학사회에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바람이 대학사회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를 필두로 전국의 주요대학이 연이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본교 또한 LG경영연구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는 등 구조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은 기초학문의 붕괴, 대학의 서열화, 전공결정의 인기학과 편중문제, 부실대학 퇴출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대학의 질적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본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구조조정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기보다는 교육부의 주도하에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 교육개혁의지를 천명했던 당국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미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 보이지 않는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이미 지난 정부때부터 준비되어온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시에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현정부는 일방적으로 대학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저항없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2002학년도부터 16개 단과대를 통폐합, 학부대학으로 전환해 신입생을 7개 계열로 선발하기로 한 서울대의 경우,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기초학문의 붕괴와 새로운 입시지옥이 도래할 것"이라며 학제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년동안의 학부생활을 거친 후 나머지 2년동안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 '2+2' 형태의 학부제실시를 발표한 고려대의 경우 또한 총학생회가 이미 지난 5월부터 학교측의 일방적 학부제 실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다.

본교 또한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캠프 총학생회는 본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



구조조에 대해 대자보를 비롯한 선전물 등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이다'며 문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열릴 구조조정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주캠프에서는 불교문화대의 불교아동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통합해 인간과학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학내 구성원들이 강력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문화대, 인문과학대, 자연과학대, 상경대, 야간간좌 등의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원정상화를 위한 학부제 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0일부터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투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학부제를 비롯한 학사

행정에 관한 학생이나 교수들의 요구나 이해과정은 철저히 봉쇄당한 채 재단과 학교당국에 의한 독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당국, 재단과 민주적인 논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학 본연의 특성을 살려나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공유와 합의 없이 교육부와 학교가 중심이 된 일방적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이후 발생하는 수많은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 사설

### 대학위기 현명하게 대처하자

신자유주의적 세계재편의 물결과 함께 한국의 경제위기가 왔듯이, 같은 선상에서 지금의 대학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경주캠프 학내 3주체들의 위기의식의 체감도는 너무나 천차만별이다.

교육개방화시대 무한 경쟁의 파고를 이기기 위해 대학에도 구조조정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를 젓는 방향은 제 각각이다. 그러기에 항해의 목적지가 너무나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현재 학부제를 바라보는 학생회의 입장은 전면철폐와 수정·보완이라는 양분된 모습을 띠고, 학교당국의 행정부서 구조조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직원은 별로 없다. 이 시점에서 대학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대학당국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학생회는 누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지 말이다.

학부제가 이제 더이상 신입생 모집단위 변경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결론내려지

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길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대학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3주체가 힘을 모아 경쟁력 제고와 위상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안일하다. 학교측의 구조조정은 설명회란 자리를 빌어 진행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17일의 공청회 자리에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대로는 곤란하다.

학생회의 대응자세에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학부제 전면철폐를 내세우고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총장면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설명회 자리에는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 사실상 지금의 모습이라면 학생회가 하나된 목소리로 단일창구의 경로를 통해 학교측과 협의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시한번 되새기라. 학생회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 말이다.

### 인권법에 바란다

정부는 오는 12월10일에 인권법을 공포하고,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원회를 구성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내부적으로는 민주사회로 가는 하나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인권사각지대로 분류돼 인권후진국이라는 악명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늦게나마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제사면위 피에르 사네 총장과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 모호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철폐하지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요즘같은 IMF시대에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갈등만 야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전향 장기수, 양심수 등이 모두, 대개 국가보안법의 그 애매한 조항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번엔 공포될 인권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환부는 제거하지 않으면 풀아 썩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개선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지난 토요일에 본교에서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 수배 해제를 위한 하루주막'이 열렸다. 준법서약서를 내지 않는 이유로 0.75평의 독방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대화조차 금지된 채 자신들의 사상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지금도 음지에서 떠도는 수많은 학생수배자들이 있는 실정이다.

'생명·자유·평등'의 당연한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유린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새롭게 제정을 추진하는 인권법은 그 의의와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동약로



공사와 동약로

지난 7일 오전 8시 55분, 학생들이 걸음을 재촉해 동약로를 오르고 있다. 하지만 학생회관 앞에서 길을 막는 공사장 인부 아저씨의 손짓 두어번에 학림관을 지나 다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만 한다. '상황설명이나 안내문도 없이 무작정 길을 막고 손짓만을 한다'고 한 학생은 불만을 토로한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동약로를 지나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덤프터와 레미콘 등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먼지, 그리고 웅장거리는 소음이 동약로를 덮고 있다. 또한 땅이 울퉁불퉁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벗겨진 곳이 눈에 띄며 건축자재를 아스팔트에 쌓아놓아 가뜰이나 덤프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보매체센터 공사가 당초 예정대로라면 근시일내에 마무리되야 하지만 기초공사 지연, 기타 제반여건 미비 등으로 내년 2월에도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5개월 정도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상황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풋말마저도 볼 수가 없다.

한 학생은 공사가 학교발전과 학생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이 너무 짜증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어차피 마무리지어야 할 공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으며 한 마디 할외도 공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학교측이 공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대철 기자

98전국농민대회...15일 보라매 공원

농촌 현실 갈수록 칩칩산중

농가부채, 정부정책실패 기인·식량자급, 26.7%에 불과

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해야 하는 가을이 왔다. 하지만, 92년에 3백만원하던 소금이 1백80만원으로 떨어지고 지난 7월에는 오이 한상자를 2천5백원, 호박 한상자를 5백원에 팔며 농촌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농촌 또한 IMF화라는 피해까지 겪었다. 농가부채의 원금상환일 도래와 지속적인 농자재가의 폭등, 사료값의 폭등 등 농촌은 그 어느때보다 연쇄부도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확까지 겹쳐 경북 상주, 성주 등의 쌀 곡창지대는 쌀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외침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주최하는 '식량자급,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상승을 위한 98전국농민대회'에서 집중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1시30분부터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될 이번 대회에서 농민단체는 △식량자급문제 부각 △농가부채 해결 △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업개혁 내용 정기국회 반영 촉구 △재해대책 마련 및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등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이중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농가부채의 경우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 28조8천억원으로 한 농가당 1천9백45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가에서 내년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9조9천억원이나 된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모든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가운데, 정부의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격 폭락이 거듭되었고 농가소득으로 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농가부채는 만연해 있다. 농가부채의 대부분은 정부의 농업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농축산물 저가격정책으로 최소한의 농가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90년대

부분별한 용자지원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이른바 신농정의 주요정책사업이었던 축산과 시설원예의 규모 확대정책은 농업정책 등으로 실패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산시설 증축을 적극 권장하여, 소키우기 열기로 한때는 소값이 폭등하고 소키우기가 과잉되자 거꾸로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밖에 없는 시설원예의 규모확대정책은 IMF하의 기름값 인상으로 이체와서 다시 자원절약형 농업으로 뒤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었고 심지어는 농가부채를 견디지 못해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이른 시점에 이번 전국농민대회는 농촌현안을 둘러싼 농·정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징적행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또한 식량자급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 식



시간이 흐를 수록 농촌의 현실은 어렵기만하다. 한농부가 논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위)과 디자인 배추를 길어엎고 있는 모습(우)



량자급률은 26.7%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쌀자급은 아직 90%선이다. OECD선진공업 국가 가운데 식량자급을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뿐으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충해, 기생충, 이상저온 등으로 쌀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추곡수매가는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농가부채와 관련해 지난 10일 정부는 농어민들이 올해와 내년중 갚아야 할 각종 부채 14조3천5백원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금리도 기존 대출금리보다 1~2% 포인트 낮춰줄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대신에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농

업법인 등을 퇴출시키고, 부채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농민에게는 신규대출을 금지기로 했다. 지난 89년 농가부채중 2조5천억 원을 탕감해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부채탕감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오는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의 1차산업인 농업, 갈수록 농촌의 현실이 어려워지는 것은 더이상 방관할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번 98전국농민대회를 계기로 전면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혁신적인 농업정책에 발 벗고 나서길 기대한다. 오인택 기자

한민전 영남위원회 조작사건 "의혹"

구속사유, 국보법 혐의보다 '정리하고 반대'

지난 7월 22일 새벽 6시 부산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노동단체 지도부, 학생 등 20여명을 구속했다. 소위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작사건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시 정부가 '용공조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었던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날 6시부터 7시40분 사이에 울산지역 17명, 부산지역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측은 "이들이 92년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선전 선동기구인 한국 민족민주전선을 지도기관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위원장명 동화회)를 조직하고, 중앙운영위원회와 통일전선사업처 등 5개 사업 부서를 두고 '결정적 시기'에 부산-경남지역을 전복할 계획을 세우는 이적활동을 했다"며, "이들은 매년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 전조직원들이 모임을 갖고 조선노동당 창건을 축하하는 문건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측의 주장과 달리 "이적활동과 하등 관련도 없는 현

대자동차 사태로 인해 체포당했다"는 의혹이 노동,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 체포당일 하루전인 21일이 현대자동차 노조와 같이 파업을 실시한 금속산업연맹이 총파업을 선언한 날이며 둘째, 구속자 대부분이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의 울산지역 노동단체 및 학생운동가란 점 셋째, 이들 모두가 '정리하고 반대'를 부르짖는 인물들이었다는 공통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직 울산 동구청장인 김창현씨가 유일한 공무원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지만, '정리하고 철회'가 동구청장 공약사항이라 이번 영남위원회 사건이 현대자동차 사태를 국가보안법으로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조작이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주장은 이들이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사건관련 공안전력자인 소위 '한민전 영남위원회' 소속자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소속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를 갖고 활동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41세로 간경화를 앓고 있는 늘푸른

서점대표 박경순씨는 6개월 시한부선고를 받은 상황이며, 어린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등 '반인권적' 행위로 용공조작과 함께 심각한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사태이후 부산과 울산에는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상태이고, 구속된 김창현씨의 부친인 김기대씨가 가족준비 대책위원회 회장을 맡아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사건조사 알리기' 작업과 '구속자 전원석방' 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부산 구치소앞에서 대책위원회의 집회를 보던 부산의 한 시민은 "아직도 이런 인권유린 사건이 있습니까? 최소한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부중 1명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정부의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비난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의는 지난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합의서한을 보내 구속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독일 노동조합 베를린지부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정치탄압이 계속 자행될 경우 현대자동차 불매운

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은 이와 같은 인권유린을 방지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는 조작사건이라는 의혹제기가 없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인 김기대씨를 만나 심정을 들어보았다.

-부모로서 지금 심정은.  
=현재 나는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취지가 국민의 도덕성회복과 정서정화를 위한 활동이다. 사기꾼이나 거액의 뇌물을 먹은 구청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난 내아들이 자랑스럽고, 무혐의로 나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은.  
=도주할 이유가 전혀없는 구청장을 긴급체포 한 것은 20만 울산동구 주민에 대한 모독이며, 한 인간의 인권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려 구속자 모두 죄가 없다는 것이 민천하에 공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영우 기자

단신 법보신문 사태 파문 언론 길들이기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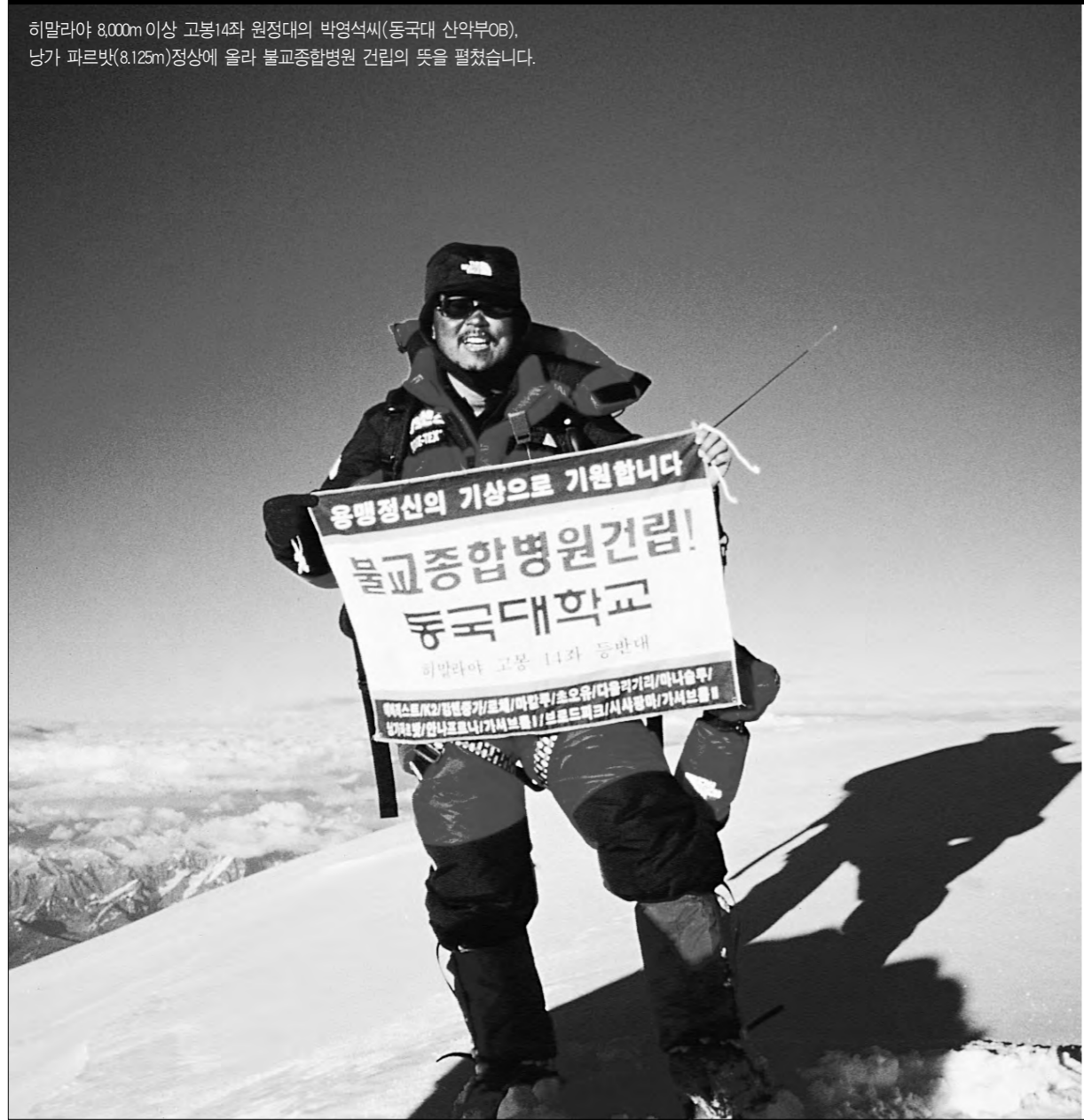
법보신문의 발행주체인 불국사 운영진이 대폭 교체되면서 사주측과 직원간에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불국사 새 주지스님에 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이 임명됨에 법보신문의 발행인과 편집진을 겸하게 되었다. 성타스님의 에도 7칙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면 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법보신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작업에 들어갔다.

법보신문노조는 민감한 시기에 인사를 이용하여 불교인론을 길들이려는 일련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여론집중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전국불교노동연맹 등의 불교단체들은 발행인이 바뀌었다고 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론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가한 부당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부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14좌 원정대의 박영석씨(동국대 신약부08), 남가 파르밋(8,125m)정상에 올라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뜻을 펼쳤습니다.

Advertisement for 'Zabi's Rock Climbing' (자비의 벽돌쌓기) event. Text includes: '이천만 불자가 자비의 벽돌쌓기'에 동참하시면 약사여래의 대원을 이룹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불교계의 오랜 염원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2천만 불자님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비의 벽돌쌓기' 동참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이 가내에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Includes a list of participating banks and a contact number: 02)260-3300.

97년 IMF체제 이후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남학생들은 입대를 서두르고 있고 여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면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휴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우리시대 일그러진 대학상

“더이상 상아탑일 수 없다”

경제논리 내세운 구조조정에 휘청 학비·취업 부담으로 휴학생 증가

중국 주 나라 이후 왕자들이 세운 최고의 학부로 수신(修身), 치인(治人)의 길을 가르쳤다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진리의 상아탑'으로 인식돼 왔다. 결코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같은 코끼리의 뿔 속에서 세상과 멀어져도 좋으니 진리만을 위해, 학문적 탐구만을 위해 정진해 달라는 사회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을 들이킬 때 대학을 둘러싼 구성원들은 잠시 당혹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으로 남기에 너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97년말을 기점으로 경제논리의 시퍼런 칼날을 들이었던 IMF는 경제논리에 취약하고 대학과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온통 허리띠를 졸라매고 변혁을 외치는데 대학은 무풍지대 인 양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과거의 인텔리로서 가졌던 특권을 고수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

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경쟁위주로 나아가는 사회풍토 속에서 대학마저 경제논리로 물아세울 수는 없다"며 오히려 대학본연의 모습을 갖추기위해 경제·사회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상아탑 옹호론을 내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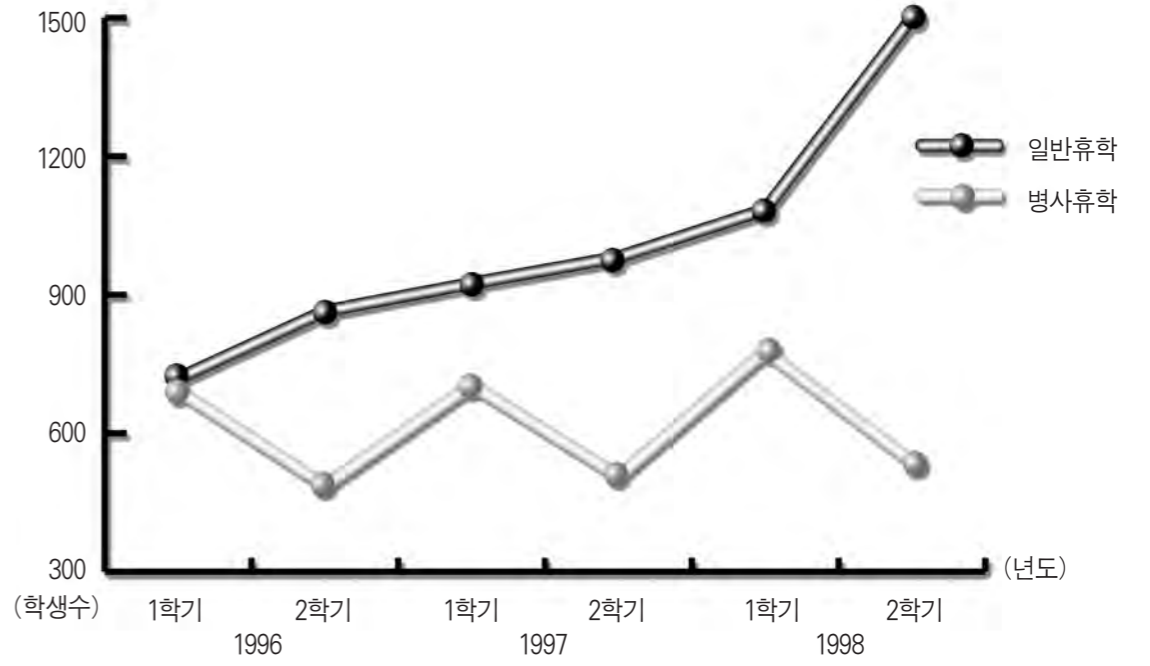
한편 대학 내부는 사회의 갖가지 논란 속에서 또다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작됐던 구조조정 중 '올바른 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구성원의 여론수렴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한 채 휴학의 길을 택해야 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 대학구성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본교만 해도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난 97년 말 이후 급격히 증가한 휴학생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한 채 편입

생 수만 늘이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본교의 휴학생 증가 추이를 잠시 살펴보면 97년 2학기 9백 82명이었던 일반휴학생 수가 98년 2학기 현재 1천 5백명으로 66%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96년까지는 사회경험이나 해외 연수를 휴학의 이유로 대부분 들었으나 현재는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의 가정 경제사정 악화나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들고 있다. 차선책으로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사회나 대학 어느쪽에 서도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없는 현실은 시대적 암담함을 더하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 벗어난 휴학생들은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 아르바이트 장소로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학교 나름의 IMF 장학금 확대나 교내 근로장학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년과 달리 휴학생 문제는 새로운 대학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현재 대학에 남아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본교 주변의 주점 및 상가는 IMF 이후에도 별달없이 영업을 하고 오히려 상가를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경제력을 의지하는 단순 소비자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생활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또한 IMF로 대변 되는 경제난을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구태를 버리

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본교 후문에 위치한 '기' 술집 주변 '흥' 뱀민집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학생들은 매일 술이나 마시고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는 모습이 매우 한심스럽다"며 "오죽하면 대학가 주변 술집은 나라가 망해도 안망한다는 말이 나오겠나?"고 한탄한다. 지금도 학비마련을 위해 집안의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동기를, 선·후배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지적은 더

욱 뼈아프다.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직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급의 학교' 아울러한 사회 속에서도 최고급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최고급의 학교를 다니기에 적합한 인격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상생하는 자세가 사회구성 일원으로 대학생들이 보여야할 모습일 것이다. 최진 기자



취업부담감으로 휴학 선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일 뿐”

“배우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애드컴'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광고·문헌·자료 등을 인터넷 문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띄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중성(사회3 휴학)군. 컴퓨터 홈페이지에 광고집문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홈페이지에 관한 여러 가지 실무에 대해 배우게 됐으며 뿌듯해 한다.

“마치 예비직장 실습을 나온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서빙·과외·막노동 등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는 김중성군은 일반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책상에 앉아 자기 업무만 보면 되는 그곳에서 '직장인' 이런 맛이

나' 라고 느꼈다고 한다. 사실상 군휴학한 그는 2학기를 마치고 나서 군대에 가는 것에도 무리는 없지만, 제대 후 4학년으로 복학을 하게되면 당장 부담치게 될 취업준비가 부담스러울 것 같으며 “미리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도 해볼겸 휴학을 먼저 하게 됐어요”라고 말한다.

지난 여름 장마때문에 여행 계획이 무산되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러군데 찾아봤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컴퓨터 통신 구인구직란에서 '컴퓨터 사용능력자 급급'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운이 좋게도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취업은 얼마나

어려울지...”

졸업후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다는 그는 음악전문 프로그램을 갖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업을 한다는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주위에 번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저도 조금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영어학원에 등록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휴학'이라는 시간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예비실업자'라는 말도 불리우고 있는 현 대학생의 생활속에서 김중성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취업의 벽을 깨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

IMF대학생 무얼하는가?

“예, 5백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얼마 전 학교 후문 앞 편의점에서 한아진(인문학부2 휴학)양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리 능숙하지만은 않은 솜씨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양은 지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잠시 학교를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부터 휴학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 학부 친구들이 자주 보고 싶어지네요”라며 그녀는 휴학생 신분이지만 1학년 때부터 활동해온 동아리의 운영

등록금 마련위해 휴학 선택

“대학 때 이런 경험 쯤 문제없어요”

위된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휴학생들이 그러하듯 그녀 또한 휴학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등록금 문제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그녀는 휴학을 하게 되었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던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일, 텔레카케팅, 방문판매,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등 정말로 많은 일을 해본 것 같다”는 그녀는 “이후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복학 때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작은 포부(?)를 밝혔다.

IMF이후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휴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

다며, 비록 지금은 2학년이지만 자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 대학생활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이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자신 있게 밝히는 모습에서 그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휴학은 1회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학칙에 따라 99학년도 2학기가 되어야 동약에서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당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해 본다. 유철주 기자

동국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98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대상 :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2. 신청서접수기간 : 98. 9. 7(월)~9. 18(금)
3. 봉사활동 기간 : 98. 9. 21(월)~98. 11. 30(월)
4. 접수처 : 학생처 장학과 (☎ 260-3050)
5. 봉사결과 : 기간내(3개월 동안)에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자유선택, 사회봉사 1학점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6. 예비교육
가. 일시 : 98. 9. 19(토) 8:20~14:00
나. 장소 : 「사회복지 법인」 향림원(경기도 광주)
다. 내용 : 특강 및 직접봉사(2시간)
라. 강사 : 김문동 향림원 원장
마. 집합장소 : 중강당(8시 20분 까지)
바. 차량편 및 집식은 봉사단에서 지원합니다.

\*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재학기간 중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1학점씩 2학점까지 인정함)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장

사회과학연구원 심포지엄

1998년도 사회과학연구원 지역발전연구

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주 제 : 환경농업과 지역농업에 관한 심포지엄

발제자 : 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외 7명

일 시 : 9월 23일 수요일 13:00~17:00

장 소 : 90주년 기념문화관 제 3세미나실

사회과학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장

99학년도 졸업앨범 재 촬영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1학기에 촬영을 못하셨거나, 촬영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 재 촬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짜 및 시간,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촬영이 재 촬영인 분들은 사진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재 촬영한 사진이 앨범에 실리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재 촬영은 없습니다.

날 짜 : 1998년 9월 16일 (수)부터 18일 (금)
시 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 소 : 불상양

신체 검사 접수

보건소와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신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4학년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각 과대표를 통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접수 현황을 보고 일정을 공고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 ▶ 검사 종류
1. 간염 항원 검사
2. 간염 항체 검사
3. 헤모글로빈(Hb) 빈혈 검사
4. 흉부 X-선 검사
5. 간 기능 검사(GOT, GPT)

검사 종류는 접수자 수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한가위 귀향사업

생활협동조합의 직영사업(각 식당 및 매장, 자판기...) 잉여금으로 민족의 대명절이 한가위를 맞이해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와 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께 귀향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선으로 저렴한 가격에 도시락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 1. 접수기간 : 9월 14일~18일
2. 접수시간 : 오전 11시 ~ 오후 5시
3. 접수처 : 중앙도서관 앞
4. 출발일시 : 10월 2일 오전 10시
5. 출발장소 : 대운동장
6. 가 격 : 5,000원(기념품, 도시락) 단, 제주도는 항공료의 30% 할인

7. 노 선 : 전국방방곡곡(대자보 참조)
\* 한가위 한마당 : 추석을 맞이해 우리 떡과 우리놀이 즐겨봅시다.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기타 보물찾기에서는 많은 상품을 드립니다.
줄다리기 정원 : 20명(과, 동아리, 소모임 학회, 향우회, 기타단체)
일 시 : 10시 1일
장 소 : 중앙도서관 앞(오후 5시~6시는 동국관 앞)

민족동국 제30대 총학생회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 희 망 달하나 천강에

한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문학적 성격을 띤 글을 쓸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 인생사의 기쁨과 슬픔은 물론 소소한 사건과 뉴스에 대한 불감증이 어 느덧 일상화되어 버린 환경적 요인은 그만큼 감성의 퇴보와 정서의 무미건조함을 더욱 부추겨 오지 않았나 싶다. 며칠전 원고 청탁을 받고 마감일이 되어서야 붓을 드니 붓끝의 무디어짐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을 인식하게 됐다. 이처럼 우리는 불현 듯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삶을 돌아보고 참된 의미를 깨닫을 때가 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인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물질만능으로 치닫던 우리의 현실은 이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한번쯤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캠퍼스에서 학생생활을 엮어 가는 대학생으로서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있다. 우리는 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이 자칫 우리들의 젊은 패기와 용기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하지만,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념을 가지고 인생의 풍요를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련의 기회를 삼자. 어려움 속에서 배움과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뿌린 만큼의 결실이 성숙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을 굳게 믿어 본다. 개미와 여치의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평범한 교훈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어려운 현실의 노예가 되어 나약한 인간이 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경제적 시련을 이겨내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 언제나 희망을 갖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동국인이 되자. 그리고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더불어

살며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나역시 어려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연구에 게으름이 없기를 다짐해 본다. 드높은 이상으로, 더 깊은 지혜로 학문적 성취를 위해 노력에, 노력을 다하길 우리 모두 다짐하자. 다만 이러한 결실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신 홍 목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 김선학 교수가 권하는 책

### 서포만필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영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탁견을 제시하면서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쓰는 시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비평서, 김만중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경제철학을 담은 이 책은 탁월한 이론과 날카로운 비평정신이 번뜩이는 고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화와 사회를 보는 시각에 많은 성찰을 하게 해준다.

일지사, 정가-9천원

### 이광수와 그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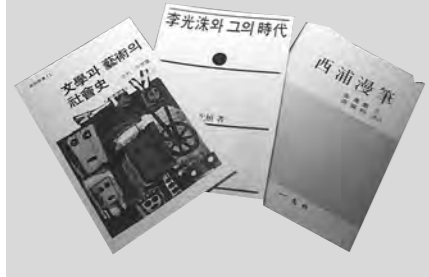
문화평론가인 서울대 김윤식 교수가 이광수의 문학과 인생을 살피기 위해 이광수 평전. 모두 3권으로 된 이 책은 한국 문학과 사상사에서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이광수의 파란만장한 역정과 문학을 격동하는 한말에서 식민지 시대 그리고 광복공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정리 검증하면서 쓴 야심작이다.

한길사, 1·2·3권 정가-각권 1만6천원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아드놀프 하우저가 쓴 문학사를 백나청, 염무웅, 반성완 등이 번역했다. 현대편, 고대중세편, 근세편 상·하 등 모두 4권이다. 사회와 문학예술과의 관계를 다룬 문학사의 고전이 된 이 책은 읽는 사람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안목을 보다 거시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창작과 비평사, 정가-각권 5천~8천원



## 조선일보 영어공문화 논쟁에 부쳐

# 비판·옹호 대립 벗어나 '문화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지난 7월 한달여 걸쳐 조선일보 지면에 '영어공문화'에 대한 지상논쟁이 벌어졌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국제어인 영어와 민족어인 조선어 가운데 자신들의 삶에 나은 것을 모국어로 고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언어는 도구라는 생각에서 언어가 사람에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고 모국어가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다고 해도 언어가 도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오롯이 남는다"

논쟁은 소설가 북극일(50)씨가 최근 발간한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됐는데 북극일씨는 이 책에서 영어공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내용은 극단적인 찬·반으로 분리돼 진행됐으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옹호론 측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영어와 국어의 효용범위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우세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로 영어공용을 주장하고 비판론 측에서는 복합적인 역사와 전반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가 단순한 '쓸모에 의해 무가치하게 평가될 수 있느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비판론

에 소설가 이윤기,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광민 연구위원, 인하대 국문과 최원식 교수 등이, 옹호론에 문학과 사회 정과리 편집위원, 연세대 정치학과 함재봉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영어공문화에 대해 지난 9~10일 본사에서 실시한 학내 가관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5백 15개의 표시 중에서 3백40개가 반대에 표시돼 1백65표의 차이로 영어공문화 반대편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일보 지면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종합주의적 평가와 일정부분 비판, 일정부분 옹호라는 어색한 절충안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연합에서는 월간지 민족예술을 통해 "이러한 논쟁이 우리 민족의 자기정체성과 이른바 '세계화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자기 의식적 이해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영어공문화 논쟁이 존재했다는 것에 일단 민족을 표시했으나 본 지면에서는 간략히 논쟁의 깊이와 결과를 얻어내는 노력에 있어 소홀했던 3가지 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 비판은 기본적으로 옹호론과 비판론 사이 비교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사범대 역사교육과 정태섭 교수는 "옹호론은 효용주의를 들어 비판론은 가치론을 들어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의 효용성과 가치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민족정서를 중심으로 한 가치론과 필요와 실용을 중심으로한 효용론은 서로 대립되는, 비교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전한다.

두 번째로 영어공문화 논쟁에 있어 자연적 문화흐름을 바탕으로한 '문화주의적 관점'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 위문화가 하위문화로 흐른다는 일반화면이론에 바탕한 문화주의의 관점은 굳게 닫는다고 문화란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강제한다고 해도 문화란 것이 스스로없이 퍼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이번 영어공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데 주력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논쟁의 결론부분에 인하대 국문과 최원식 교수가 잠시 지적했던 '국가의 위상과 시장의 위상을 함께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의 탐색'에 대해 소홀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근본 뿌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어공문화 나아가서는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 지더라도 지켜낼 수 한 국문화의 기초를 명확히 제시했어야 옳았다.

우리는 미국의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를 싹쓸하게 비판했던 프랑스가 '주라기공원'으로 엄청난 흥행 성적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토록 자신의 모국어를 아꼈던 프랑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외국 문화를 선호하고 받아들여야 하면서도 집단에 의해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혹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정이 '민족주의'라는 큰 덩어리 안에 숨어있지는 않은지 생



조선일보 웹사이트에서 영어공문화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각해 보고 투명화된 감정을 기반으로 문화지향점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최진 기자

## '문화재 용어 사전' 발간한 성낙진 교수를 만나

# "문화재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주 이해를 위한 한영한 사전' 중

장니(障泥)=다래, 말다래: mud guard 말탄 사람에게 진흙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말안장에서 양쪽에 늘어뜨려 놓는 물건 (천마도) - '경

의대 교수가 사전을 냈다면 의학사전도 아닌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문화재에 관한 용어사전을 낸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6월 10일 경주지역의 유적과 유물에 관한 용어를 '한영한 사전'으로 펴내 학계나 주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본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를 찾아가 보았다.

경주에 내려온 후 주말이면 네식구가

지역 곳곳에 널려져 있는 유적지나 유물을 찾아 다니면서 문화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지만 그때마다 안내문과 게시판에 쓰여진 어려운 한자나 전문용어들로 인해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화재 관련 서적들을 쌓아 놓고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목록별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자료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문화재가 있는 현장에서 달려

갔죠"라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책을 쓰게된 동기를 얘기한다.

그가 '경주이해를 위한 한영한 사전'을 읽는 독자에게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이책으로 인해 경주를 찾은 외국인들과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는 전한다.

출판과 감수를 한 신라문화진흥원 진병길 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한영한 사전은 거의 없으며, 특히 문화재에 관한 한영한 사전은 처음이며 또한, 내용속에는 친절 한 우리말 설명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 풀이까지 돼 있어 가이드나 외국인을 비롯

해 국내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책을 찾아 정리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일일이 주위 관련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성낙진 교수는 한편으론 전공서적보다 용어사전을 먼저 내게 된 것에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경주 이해를 위한 한영한 사전'은 종전의 용어사전과는 달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계기삼아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는 문화재 서적 및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장희정 기자

#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공익광고

“이 역시 갑자기 등장한 세계최고의 여자 골퍼와 부활한 암울한 시대의 금지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날이면 누구나 괜히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다. 누가 커피라도 한잔 마시자고하면 어쩌나, 택시비도 없는데 막차가 끊기면 어쩌나.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은 바로 각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 등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요즘은 그야말로 온국민이 주눅든 지경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서자는 의식개혁을 전달하려는 광고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건국 50주년을 맞아 '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공익광고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국민의 새로운 이상으로 떠오른 프로골퍼 박세리를 모델로 해서 물구덩이에 공이

빠진 위기 상황을 맨발 샷으로 극복하는 장면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양희은의 '상록수' 노래가 어우러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은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코흘리개들에게 멋진단원짜리 골프 지도가 봄을 일으키고, 한때 금지곡이었던 노래가 이제는 정부광고의 배경음악이 되었다는 화제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 광고는 미국의 CNN, 일본의 도쿄 TV등을 통해서도 소개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역시 갑자기 등장한 세계최고의 여자 골퍼와 부활한 암울한 시대의 금지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 광고를 통해 설사 일말의 희망을 느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것이라는 비전도,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이 현실로 실현될 것인지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박세리라는 모델은 삼성의 후원을 받고 있는 프로 운동선수로서 삼성자동차 S.M.S, 삼성전자 에니콜, 명품 플러스 등의 일반 상업광고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익광고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자칫 삼성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상작용을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것이다.

공익광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 형성에는 확실히 성공적인 캠페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을 공감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양 응  
금강기획 저장



한국문화 어디로 가는가?

# 잡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문화독자주의 싹 잘린 채 단순 소비시장으로 전략



국가와 국가간의 벽을 허문다는 '신자유주의'가 전세계 거대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이 저질러놓은 무질제한 '세계화' 바람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본 지면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갖는 '미국식 경제총속'이라는 본 의미를 살펴보고 경제와 더불어 나타날 문화적 종속에 대해 문화제국주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신자유주의 문화의 발생 배경과 정의
  2. 신자유주의 문화에 섭렵되는 세계 문화 속 한국문화
  3. 신자유주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제언과 대안

**여는 말**

IMF 위기를 맞은 지 일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불구하고 국민 계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세계대공황의 발생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의 대공황이 환경 파괴, 인구폭발, 자원 고갈, 핵 전쟁, 기근과 질병을 동반하며 증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우리는 허황된 자만심에 빠져 한국 경제가 제3세계(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저발전 국가군) 수준을 넘어 선진국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믿었다. 외국 학자들도 한국의 경우를 제3세계에서도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기적이라며 경탄해 마지 않았다. 3세계 국가들도 한강의 기적으로부터 교훈을 찾고자 했으며, IMF나 IBRD와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졸지에 경제적 주권 행사를 제한받는 IMF 관리체제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 자신은 물론 외국 언론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외국의 어느 신문은 세계 최대 채무국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한 한국 경제를 - 이슈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 황소가 되기를 꿈꾸다가 자멸한 개구리에 빗대어 조롱했다.

이제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할 때가 되었다. 이 곳은 더 이상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경제대국이 아니라 제3세계 저개발국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종속되고 내부의 구조적 모순으로 혼란과 부패가 만연된 주변부 국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편에는 최고의 사치와 향락, 다른 한편에는 최악의 빈곤과 불평등이 결전을 준비하는 양심적인 채 마주하고 있다. 이것이 98년 가을 IMF 환란을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90년대의 한국 문화 - '잡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오늘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의 문화계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일까? 90년대 한국 문화는 세계화, 정보화, 상업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자본주의 중심부(미국, 일본 및 서구) 문화산업에 종속·편입되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독자적 발전의 싹을 잘린 채 중심부 문화산업의 단순 가공 소비 시장으로 전략했으며,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문화의 질적 저하라는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90년대의 문화는 외국에서 직수입한 '담론'들로 들떠 있었다. 사람들은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목청 높여 외쳤다. 한국 사회는 70년대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어느 사이 성숙한 '포스트-모던(탈근대) 사회'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어설픈 틀로 치장되었다. 신세대와 미시족들의 과소비와 사치, 탈선과 방종마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미화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대외 종속, 불평등 구조와 환경 파괴 등 거시적 문제에는 관심을 돌리는 대신 가상현실, 스포츠와 섹스, 상업적인 베스트셀러 작자들이 이 시대의 '경박단소(輕薄短少)'의 정신을 반영하듯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물론 성 해방, 동성애, 소비와 육체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주제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우리 주위에는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거시적 문제들이 얼마든지 산적해 있지 않은가? 반면 90년대 신세대 작가들의 정신은 그야말로 '잡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문화의 뿌리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해외 베스트셀러들만을 편식하면서 기껏해야 베끼기와 흉내내기 일관했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삶의 실연을 응시하려 않은 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힘의 갈등을 애써 외면한 채 정신적 육체적 향락만을 추구했다.

눈을 문화의 중심 기관 가운데 하나인 대학으로 옮겨 보자. 이곳에도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90년대 들어 서구 '석학'들의 내용이 찾아지고 있다.

96년 말에는 저명한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가 최사 대접을 받으며 방한했다. 한국 학계의 권위자들은 미주알고주알,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정통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자라도 더 배우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당시 하버마스에 대한 국내 철학계의 태도는 "꼭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숙제 검사를 받는 초등학생 같았다"라고 어느 소장학자는 자괴어린 독백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하버마스 자신도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마련된 인터뷰에서 "유교, 불교 등 풍부한 문화적 이론적 전통을 지닌 한국이 왜 서구 이론에 그토록 집착하는가"라며 한국 인문학계의 고질적인 대외 종속성을 개탄했다고 한다(중앙일보 97.12.11자 참조).

**신자유주의의 관철과 문화적 종속**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문화적 정체성 위기에 놓여 있다. 언어, 종교, 윤리, 예술 등 문화 영역에서 정체를 문제삼는 정책문화가 될 것이란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지만 후자를 믿고 싶다.

▲외환위기,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이런 말 뒤에에는 항상 IMF가 있었다. 그리고 IMF재협상, IMF 1년 반만에 극복, 약속 충실이행, 경제개혁, 제2건국이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이상하다. 외환부요고가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도 아무도 IMF재협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의 공감대는 영토, 혈통, 공공의 역사적 경험들과 더불어 민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를 비롯해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상실한 민족은 결집력을 상실하고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 그렇기에 역사상 식민지 정복자들은 예외없이 피정복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 제국주의의 무례 침략도 16-17세기의 종교 침투로부터 시작된다. 가톨릭의 예수회는 이미 16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18세기 초 중국에서 100만에 이르는 신자, 다시 말해 서구 제국주의의 후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보다 늦은 19세기 초 중국에 상륙한다. 미국은 19-20세기 동안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돈과 선교사들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75년 베트남 통일로 패망한 월남의 지배세력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배의 동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종교는 프랑스인들이 이식한 가톨릭과 개신교였다.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 통치는 군사력과 경찰력 등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피지배 집단의 스스로가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들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 집단들은 종교, 사상, 윤리, 심지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피지배 집단들에게 주입시키고 노력해 왔다. 맑스가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했던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배 계급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제3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제국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가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다면,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전지구적 하나로 묶는 세계 시장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훨씬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그러나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민족들의 의식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구의 문화제국주의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결과는 너무도 자명할 것이다.

이 윤 계  
민족주의 연구소장

# 자아인식

학교 안에서

동그라미 사진전

사진동아리 동그라미에서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창립 30주년(오는 99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2명의 졸업예정자들의 작품 50점이 선보인다. 1학년 시절의 습작에서부터 최근의 숙련된 작품까지 변천과정(?)을 엿볼 수는 기회, 또한 동그라미에서는 이날 관람객들에게 직접 만든 엽서도 나눠줄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학술문화관 지하전시장에서



# F. O. C 일본 영화제

올해 창립한 영문과 영화패 F.O.C가 일본 영화를 상영한다. "일본 영화의 개방에 따라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임이다"라며 영화제 기획의도를 밝히는 이승현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한글 자막을 넣기도 했다. 민촌, 우니기, 물 속의 8월 등 총 16편의 영화가 하루에 4번, 4일에 걸쳐 상영될 예정이다. 입장권은 1매에 1천원이며, 자유관람권의 경우에는 8천원(1인동반가능), 5천원(개인 이용시)이다.

오늘(14일)부터 17일까지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5-8351-9365

# 연극영상학부 하계공연

본교 연극영상학부 3학년 학생들이 제 328회 하계 워크숍 작품을 발표한다. 날 사 이면 원작의 굵다 터를 각색해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7명의 학생들이 연출을 한다. 연극은 이야기거리를 찾던 작가가 관객들을 향해 자신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소재에 관해 흥분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막이 오르는데...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학술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60-8753



# 끼장터

'이렇게 좋은 날 뭐가 신나는 걸 찾으세요? 계산관 앞 마당으로 오세요' 동국인의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위해 마련된 끼장터가 지난 학기에 이어 3회를 맞는다. 이번 마당의 주인공은 몽계구름으로 1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노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여학생처에서는 끼장터에 참가하길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학술문화관 지하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60-8753



# 메아리

## 부적절한 관계

▲영화 '웍 더 도그'가 뜨고 있다. 클린턴의 지퍼게이트를 절묘하게 예견한 세기의 화제작이구나. 얼마전 전세계 언론을 통해 전 백악관 인턴이었던 트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던 세계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을 지켜봤던 우리로서는 또한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추문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친 스타검사가 없었더라면 클린턴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로인해 정치적

위기까지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가능했을까.

▲경제정문화가 열린다. 그것도 10월 중에 말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얼마나 준비된 정문화가 열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 쪽에선 경제파탄 책임을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지금의 정치권 사정과 경제정문화 강행카드는 정계개혁을 위한 불어제우기식 정치쇼가 될거란다. 다른 한쪽에선 경제관료들의

정책을 문제삼는 정책정문화가 될 것이란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지만 후자를 믿고 싶다.

▲외환위기,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이런 말 뒤에는 항상 IMF가 있었다. 그리고 IMF재협상, IMF 1년 반만에 극복, 약속 충실이행, 경제개혁, 제2건국이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이상하다. 외환부요고가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도 아무도 IMF재협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

윌스트리트의 대변자인 유력 미국언론들조차도 가혹하다고 논평했던 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스타검사와 같은 인물도 없는 것일까. 그것도 아닌 언론이 그런 사람을 찾기 못한 탓일까.

▲IMF의 단기 국제발행 권고를 받았던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의 타율적인 개혁은 무의미하다. IMF한파 속에서 피폐해지고 있는 민생을 방치한 상태에서 극복된 경제위기는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가 야수적 자본주의·천박한 자본주의의 시련장이 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지금 우리가 경제정문화를 열겠다는 정부의 말에 희망을 거는 건 경제위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정책변화에 반영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정권이 바뀐 이후 청문회 석상에서 지금의 IMF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시인하게 될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해경 편집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0561)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학교는 쉬어도 학업은 쉬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휴학한 동기가 그림습니다. △돈 없어서 군대 갈려고... △휴학? 없는 공간에 또 개설했나? 놀랐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퍼 △전진을 위한 잠깐의 후퇴! △나도 휴학해야지. 내가 또 군중심리에 많이 따르잖아. △너도나도 휴학. 하지만 상관없어 나에겐 너만이 전부이니까. △돈안내고 어떻게든 개겨 불러다가 일주일도 못되서 짤렸다. 이것도 휴학인가요? △휴지만도 못한 학교라니... △4인방이 있었다. 개강한 후 수업에 들어가보니 친구들이 보이질 않았다. 모두 '휴학'이었다. 아 슬퍼라. '휴학' 아내 친구들 돌려줘... △휴~ 학기는 시작인데 돈이 없으니 등록도... △휴: 한숨밖에 안나오는군 학: 학비가 뭔지! △휴학하면 뭐하노~ 예비실업자 기간만 늘어질뿐... △휴학의 맛까지 부류... 군대가기 위한 휴학, 공부하기 위한 휴학, 학비가 없어 하는 휴학, 공부를 가장한 예비실업자들의 휴학(?) △휴: 일엔 뭐할까? 학: 학교나 가야겠다. △휴학도 구조조정 해야 되는거 아닌가? △휴학생의 비애, 휴식공간에서 더 느껴진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때 잠시 휴학해도 좋습니다. △휴식같은 친구. 그 이름 휴학이여! △학교 탈출한다! 동국 PCS 휴학 △아! 이 기분이 휴학이다. △이 보다 더 날릴 수 없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휴학교 △휴학 한마당, 휴학생들 한 번 모임이다. △한휴런 조직합니다.(한국 총휴학생회연합) △휴학, 이리다 꼭 쉬게되는 것이 아닌지. △잡지마, 막지마, 휴학할거야. 치솟는 등록금... 느는 건 휴학생.

동문칼럼

마음을 내려놓는 '철학'

어려운 때다. 취직이 안된다고 한다. 졸업을 해도 취직을 할 곳이 없어서 취업재수생, 삼수생이 많다고 한다. 당 사자들의 예타는 마음이야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낙담과 한숨으로 삶을 내팽겨쳐 버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란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이에 예외는 아니다. 강원, 감봉, 구조조정, 해고, 치솟는 물가... 들기만 해도 섬뜩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까지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고만 생각

하고 만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결코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긴 시간동안에 이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한 필연이 있었으리라. 그래도 요즘들의 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허탈한 마음은 나 스스로를 자꾸만 안으로 움아매고 있는 것이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항상 마음으로 존경을 드리는 스승께서 학창시절에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이고, 알지도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라니 참으로 알 듯모를 듯한 그 말씀이 요즘에는 가슴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

면 더 깊이 물속에 빠져들어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 순간 허우적 거리지 말고 마음을 편히 하고 온몸에 힘을 빼면 자기 몸이 물에 뜬다는 것을 알기는 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타처서 그렇게 행동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점점 더 혼란 속으로만 빠져드는 그 동안의 내 사고와 가치 기준처럼. 이럴 때 스승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놓아 보고자 한다. 가슴 한 쪽은 텅 빈듯 허전하고, 또 다른 쪽은 무엇인가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탐 진 치 삼복에 찌든 가슴을 훌훌 털어 내려놓아 보고자 한다. 지금 내게 닥친 이 벅찬 삶에 허우적거리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이란 지금만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리라. 그러면서도 그 동안 나는 너무나 스스로를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어 집착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여유있게 되돌아 보자.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모든 것

이 내겐 절망적이었다. 이런 끝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차를 몰았다. 어느덧 차는 땅 끝까지 와버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끝이라 여기던 그 곳에서는 바다라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글귀의 내용처럼. 그렇게 한 생각 둘러보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이,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던가 새롭게 보일 것이다. 부처님게서도 '일체유심조'라 하셨던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박우석 (시학 82 쪽, (재)대한불교진흥원 연수과장)

문화 엑스포 미숙한 진행 관객 배려 대부분 없어

새천년의 미소 이곳 경주에서는 지난 10일 전야제를 시작해 98경주 문화엑스포가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린다. 중앙시장 사거리를 출발해 경주역까지 쪽 뺨은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는 모습까지는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 경주에서 세계문화와 관련한 의의가 전야제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어 진행된 본 공연은 경주역 부근에 우후죽순격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서서 관람을 하거나, 역부근에 있는 건물에 매달려서 전야제를 관람해야 했다. 전야제 구경보다는 사람들 구경이었다.

'세계의 문명을 이곳 경주에서 한 눈에 볼수 있도록...'이라는 모토로 준비한 행사였다면 당연히 관객들을 생각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할텐데 옳다고 생각된다. 풍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에게 있어 오도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감상할 수 있을까?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화엑스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관객이 편안히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야제를 계기로 앞으로의 문화엑스포 행사에 과오를 범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단편적인 사안 치중 구체적인 대안 필요  
3면에 사실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휴학증가와 그에 대한 학교의 대응책과 학부제 확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사실은 학교에서 내놓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있으나 제대로 평가한다기 보다는 지켜보자 식의 일버무리는 듯한 논조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타대 학과의 비교 같은 것을 통해 좀더 확실

한 상황판단과 더불어 대안제시까지 나아간다면 더 좋을 듯하다.  
이동희(인문과대학 인문학부 한문전공)  
추천하는 책소개 선호  
문화면의 책소개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기능을 해주었다. 물론 시간간도 소개도 좋지만, 지난 호와 같이 교수님, 선배님 혹은 동지들이 추천하는 책소개가 더 반갑고 정겹다. 실력 읽어보지는 못 할지라도 그 제목을 한번 베껴적도록 만든다.  
박선영(공과대 건축토목과)

동단이



김경일 <13>



열악한 우리 문화는 위기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지난 날에 있었던 스크린 쿼터제 폐지 발언 이후 우리 영화계가 대응했던 모습에서 과히 짐작하고 남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학생들이 일본 영화를 상영하는 이유가 "일본 영화 개방에 따른 준비차원"이라는 것에서 찬성하지만, 나는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주연(시범대 국어교육과)  
수활을 다녀와서  
스스로를 일깨운 계기, 수활  
6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나에겐 이번 여름은 연일 그치지 않는 비로 정말 지루한 날들이었다. 다행히 우리집은 수해를 입지 않았지만 홍수 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했던 서울, 경기의 많은 지역의 침수 피해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던 중 참사담 봉사단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긴급구조 봉사대와 불우이웃돕기 봉사회를 모집하였다. 첫날 봉사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은 진흙과 쓰레기를 치우고, 짐정소를 하면서 사라져 버리고 해가 질 무렵 깨끗하게 정리된 골목길을 돌아 볼 땐 괜스레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삼일간의 봉사활동은 때론 비에 온몸이 젖기도, 또 땀 속에서 살이 검게 타기도 했지만 진정한 땅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주위 사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국밥(1300) 떡볶이백반(1300) 생선까스(2500) 모듬비빔밥(2000)
화	짜개백반(1200) 돈갈비찜(1500) 햄박(3000) 해물뚝배기(2500)
수	설렁탕(1300) 참치볶음밥(1300) 돈까스(2500) 햄야채볶음(2000)
목	콩비지찌개(1300) 닭도리탕(1500) 정식(3000) 소고기볶음밥(2000)
금	수제비감자국(1200) 갈치비빔밥(1300) 비후까스(3000) 소갈비찜(3000)
토	햄숙어찌개(1300) 돈까스(2500)

(단위: 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청국장찌개(2800) 모일초밥(3000) 부대찌개(1300) 새우볶음밥(1300)
화	감자탕(3000) 간짜장밥(2800) 불고기백반(1500) 스파게티백반(1300)
수	북어국(2800) 돈까스(3000) 양지탕(1300) 북어찜(1300)
목	소머리국밥(3000) 썬밥(3000) 오징어볶음(1300) 하이라이스(1200)
금	버섯전골(3000) 콩치구이(2800) 비빔밥(1300) 돈게첩볶음(1500)

(단위: 원)



동악강장

목격글

추하합니다.

△황성룡 오빠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쁜이  
△이쁘니 언젠가 생일 축하하. 점점 늙어 가누나 -유진, 선형, 주희, 귀환 그의 다수  
△재훈이! 영문3 과대 먹었다. -창숙  
△봉만이가 형이 문과대 대의원에 당선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과대 일동  
△성진아! 생일 축하한다. 동주야! 생일 축하한다. -아  
△9월 14일 체교97 영철이의 생일을 외로이 자축합니다. -역사교육과 즐거운 참여 신바람 학생회 운영회 · 집행부  
△2천 7백의 대표자이신 아장님의 생일과 뒷발 철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신문장이  
△국어 국문학부 98 전방위예술가 미경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갈아만든 계열 미숙이의 입방을 축하합니다. 잘 살아보세!

열심히 합니다.

△삼룡형, 준길이형, 용태형, 용진형 임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삼범이형 잠 고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요. 형! 사랑해~ -98 경호  
△9월 16일(수) 6시 연화원에서 3/4분기 전동대회가 있습니다. 하반기 힘찬 깃발을 치켜들며... -DKDY  
△릉계구름 2학기 신입부원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자구요!!  
-릉계구름 7기, 8기  
△역사교육과 정기총회 16일(수) 소강당, 열심히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역사교육과 즐거운 참여 신바람 학생회 운영회 · 집행부  
△9월 11일 개강파티를 화려하게 마친 생경과 3학년 학우 여러분 한 학기동안 열심히 살아봅시다. -신문장이  
그리고...  
△무역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땀

리 학교에서 봅시다. 담구치러 가야지.  
-모든 무역인을 대표하여  
△지면(쥬머느리 운녀)야 예원이 누님이다. 군대 잘 갔다야! 비행기가 지면으로도 뜨나요?  
△수교97 술 한잔해요!  
△유스호스텔에서 19~20일 테마 호스텔링을 갑니다. 이글을 올려주세요.  
△푸름누리가 썩박한 신입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은방글

추하합니다

△7년 전에 끝에 드디어 9월 15일 축결혼식 축하해 주세요.  
-너를 지켜보는 한 선배  
△늦었지만 멋진 이용운 오빠의 생일을 진심으로 귀엽고 이쁜 아그들이 축하합니다. -수교과 민지가  
△상경야! 명예위원장편거 축하한다. 연락하고 잘 지내라. -Mr 기락  
△96511759. 0913. 예명:뽕악이 영아! 너

의 22번째 생일 진짜로 축하한다. 항상 밝고 건강하길 바라며 조그만 일에 행복하길!  
-오빠  
△DUCO의 뽕악이, 석기, 장우, 세영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애들이~ 생일 축하해.  
△9월 22이 안용호와 안지선의 3백일을 축하드려며 이글을 올립니다. -Dnck  
△재환이형과 해경이의 생일을 추카드려요... 생일날에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미역국은 알아서들 먹도록 합시다. -생일을 맞은 한 학우

수고했습니다

△22번째인 교지가 나왔습니다. 시립여러분 수고했잖아요. 특히 선화야 고생 많았네. 나는 23번째 책은 더 열심히 만들도록...  
-너를 지켜보는 한 선배  
△늦더라도 고생하는 자연대 교학과 이경현선생님! 정말 수고하 많네요. -운영  
△석주선생님!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군대에서도 자랑스런 대한의 날아로... 언제나 화이팅! 써너니 이빠해줘서 감사해요. -동묵회

알립니다

△헬로 coffee shop에서 25일에 영문과 야구부 1학년들이 일일차집을 합니다. 가격 싸고 서비스 만만!! 많이 오세요~  
-DELL 9기  
△새로운 Rock Band 아우 락 음악을 사랑하세요? 그럼 문을 두드리세요. 항상 열려있습니다.  
△대학인으로 이시대를 책임지고 갈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성실하고 참신한 98학번은 누구나 대환영...

열심히 합니다

△박대현 열씨미 공부해서 한 번에 딱 붙어버려라 -F·H  
△묘선선배! 요즘 늦어름의 날씨맞인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마니마니 힘내도록 하세요.  
-어느 한 인간  
△학내에 거주하는 예비실업자 여러분들! 비록 취직이 안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